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정산 절차 통합

온라인서 세무서 방문 예약… ‘AI 세금비서’ 도입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세금비서’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면 이런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더 나아가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종 업종 사업자에게 맞는 신고 안내도 진행한다. /이연수 기자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 제공

경제 프리즘

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10명 중 4명 운전중 스마트폰”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운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문화지수가 80.87점으로 전년보다 1.93점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42.33%로 전년(35.92%)보다 6.4%포인트(p) 높아졌고, 운전자 신호 준수율은 95.88%로 전년(96.06%)보다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과 운전자 신호 준수율이 최근 3년 연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띠 착용률은 84.85%로 전년(84.83%)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43%로 전년(37.20%)보다 4.77%p 줄었다.

작년 11월 출생아 2만명대 붕괴

작년 1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인구는 25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하면서 작년 11월까지 4만명 넘게 줄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9,800명으로 1년 전보다 254명(-1.3%)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7명)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영세 전문건설 “종합건설 진출 어려워”

‘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 시행…전남 업체 수주율 5%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영세 전문업체의 종합건설공사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관련 업계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여년 동안 유지해오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격 폐지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전문-종합 간 상호진출 공사 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입찰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 때문에 종합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작년 발주된 전남지역 전문공사 527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은 공사 건수는 296건(56%)에 달한 반면, 종합공사 1,398건 중 전문업체가 낙찰받은 공사 건수는 71건(5%)에 불과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지자체 등 주요 발주기관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LH광주전남본부, 건설현장 특별점검

안전 최우선 원칙 현장관리 의지 천명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동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장성수산 아파트 건설공사 및 효천2지하차도 개설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대상 현장의 동절기 골조공사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시행했으며, 특히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 시공과정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관내 민간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확보·안전관리방안 이행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를 전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의 안전 최우선 원칙 현장관리 의지를 천명했다.

김 본부장은 덧붙여 “지속적으로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26일 이마트 광주점을 찾은 한 고객이 간편가정식을 둘러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제수음식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이마트 간편가정식 3년 전보다 123% 신장

언택트 명절이 자리잡으며 제수음식을 간편가정식으로 간소하게 준비하는 추세다.

26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비해 123% 신장했다. 판매구성비는 2019년 8.1%에서 지난해 10.3%까지 증가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9% 올라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소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로 최근 명절에 전통적인 차례상 대신 전, 떡갈비, 너비아니 등 간소하게 준비하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명절이 자리잡으면서 명절에 대한 인식이 ‘차례’를 지내기보다 가족들끼리 모여 여가나 휴식을 즐기는 의미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간편가정식 전은 2019년 설 명절부터 신장해 최근까지 고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전체 매출 중 구성비가 80%에 이른다.

이마트 김세민 광주점장은 “명절을 간소하게 지내면서 명절 차례음식도 간편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 다림시설 |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